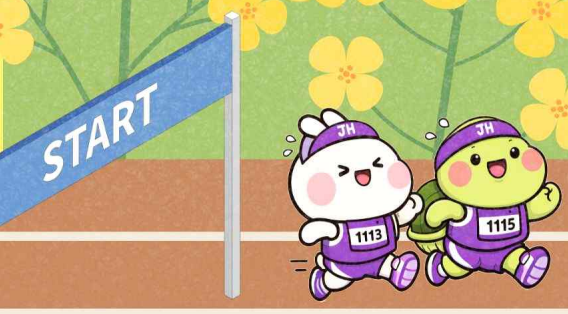
2026 MARATHON's Monthly

APRIL

- 마라톤국어 4월 과제집
- 1일 1과제 1코칭을 통한 독해력 훈련
- 문학&비문학 교차 구성을 통한 실전 감각 함양



1일 1지문 1코칭 1등급
RUN

마라톤 커리큘럼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현대 소설	인문 예술	고전 시가	필수 어휘 TEST
5	6	7	8	9	10	11
주간 복습	사회 문화	현대 시가	과학 기술	고전 소설	인문 예술	필수 어휘 TEST
12	13	14	15	16	17	18
주간 복습	현대 소설	사회 문화	고전 시가	과학 기술	현대 시가	필수 어휘 TEST
19	20	21	22	23	24	25
주간 복습	인문 예술	고전 소설	사회 문화	현대 소설	과학 기술	필수 어휘 TEST
26	27	28	29	30		
주간 복습	고전 시가	인문 예술	현대 시가	사회 문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부법

1일 1지문 · 1코칭

국어 마라톤은 단순히 하루 한 지문을 읽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국어 강사로 살아오며 쌓아온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현장에서 다듬어진 실전 감각과 내공이 모두 녹아 있는 공부법입니다.

독해력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반복을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하루의 루틴이 쌓여 결국 성적으로 증명되는 구조,
그 과정은 이미 수천 명의 학습 결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 마라톤을 통해 스스로의 변화를 분명히 체감하는
의미 있는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의 옆에서,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마라톤 국어팀 드림

마라톤 과제 제출법 가이드 [한 장 요약]

1. 마라톤 웹에서 업로드 된 과제 다운로드 [패드 풀이 혹은 인쇄 풀이 중 선택]
- www.marathonstyduy.com 으로 접속하여 부여받은 핀번호로 클래스에 입장 후 과제를 다운로드합니다.
- pdf 다운 받아 패드에 넣어 풀어도 되고, 인쇄하셔서 풀이하셔도 됩니다.
- 매일밤 24시에 업로드됩니다. [업로드 시간 변경되는 경우 저희가 사전 공지 해 드립니다.]
- 휴대폰, 패드, 노트북, 데스크탑 등 모든 기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삼성 브라우저의 호환이 일부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정 접속 현상 발생 시 크롬 사용을 권장합니다.

2. 과제 풀이 완료 [평균 10분~15분]
- 과제를 풀 때에는 "순수 풀이 시간"을 측정합니다.
- 시간을 재되 제한시간 안에 풀지 못했다고 해서 찍지는 않습니다.
- 시간을 재는 이유는 나의 풀이시간을 스스로 파악하기 위함 + 집중력 발휘, 실전 감각 함양을 위함입니다.

3. 채점 + 오답정리 + 지문 장악 [평균 15~30분]
- 오답 정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3단 오답정리법"을 진행합니다.
- 지문 장악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문학, 비문학 지문을 깊게 이해하려 노력하며 오답정리합니다.
- 선생님의 영상은 단순 문제 풀이가 아니라, 학생이 먼저 충분히 고민하고 학습했다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는 실전 피드백 코칭입니다.
- 스스로 지문과 문제를 이해하려는 과정이 잘 선행될수록, 이후 코칭 영상의 이해도와 학습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3. 코칭 영상 시청 [평균 15분]
- 영상 속 필기는 필기노트에 있으므로 눈과 귀로만 즐겁게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 나의 풀이와의 공통점, 차이점을 생각하며 필기보다는 사고하며 이해에 초점을 맞춥니다.
- 영상 속에는 선생님의 퀴즈가 숨어있습니다. 답변 기억하셨다가 제출 시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필기노트 보며 내 과제에 샘 필기 주요 부분만 추가로 적어넣기 [평균 5~10분]
- 영상 시청 후 필기노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필기노트를 펴고 한번 읽으며 이해했던 내용을 상기합니다.
- 모든 부분이 아닌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나의 과제집에 옮겨 필기합니다.

5. 마라톤 웹에다가 마감 시간 내에 과제 제출
- 필기노트의 주요부분까지 필기 완료된 나의 과제집을 마감 시간 내 제출합니다.
- 패드 풀이의 경우 화면 캡쳐 방식으로, 인쇄 풀이의 경우 사진 촬영의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본인의 풀이가 잘 보이게 촬영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답정리와 코칭 영상 시청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질문을 선생님께 1:1로 합니다.
- 질문이 없는 경우에도 선생님과 가벼운 스몰토크! 안부 인사 및 소통 적극 환영입니다!

5. 다음날 선생님이 채점 후 주신 피드백을 확인합니다.
- 선생님이 현장 수업 후 새벽에 주로 채점합니다. 직접 다 읽어보시고 1:1 피드백을 드립니다.
- 평균 익일에 선생님의 피드백이 도착합니다.
- 추가 질문은 다음날 과제 제출 시에 언제든 해주시면 됩니다.

→ 위 1일 1지문 1코칭의 과정을 데일리로 반복하며 루틴과 실력을 만들어 갑니다.

1일 1문장의 힘

위대한 업적은 아주 작은 기회로부터 시작된다.

1일 1지문의 힘

[◷ 이상적 소요시간 : 6M 30S]

▣ 문학 – 현대소설 (32211)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A] 그 모양을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이, 마치 난간에 무슨 꽃 등불을 달아 놓은 것처럼 요요하였다.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다.

모르는 사람들도 곧 알게 되었다.

[B]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도 하늘 높이 자라서 저기만큼 걸린 매곡교 다릿목에서도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올려다볼 만큼 되었던 것이다.

[C]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뒷집에 떨어져 싹이 나고, 어느 해 바람에 불려 갔는지 그보다 더 먼 건넛집에도,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하시고, 작천의 친정 어머니를 남겨 두신 채, 신행 후에 전주로 돌아와 맨 처음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천변이었다.

[D] 동네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쪽으로는 흰모래 둥근 자갈밭을 데불은 시냇물이 흐르며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 내고, 울타리를 바꾸었으나, 그저 움막처럼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얽은 뒤, 풍우나 피하자는 시늉으로 지은 집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는 유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 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그윽한 꽃이었다.

그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 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당에 심으시며

"기념."

이라고 웃으셨다는 아버지.

"처음에는 저게 자랄까 싶었단다. 그러던 게 이듬해는 키를 넘드라."

해마다 이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결에 손수건만 해지고, 그러다가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부낀다.

그리고 가을에는 종이우산만큼이나 넓어지는 것 같았다.

하늘을 덮는 잎사귀, 그 무성한 잎사귀들…….

그 잎사귀 서걱거리는 소리가 골목 어귀 천변에까지 들리는 성싶었다.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문득 고개를 돌려,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다.

[E]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

"참, 어머니 지금 저기, 불빛 뵈는 저 산마루에 절, 저기가 영익이 있는 데예요?"

나는 동편 산마루의 깜박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무심한 듯 물었다.

"아니다. 그건 승암사라구 중바위산 아니냐. 그 애 공부하는 덴 이 오른쪽이지……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이야. 여기서는 잘 뵈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는 눈을 들어, 어두운 밤하늘에 뚜렷한 금을 긋고 있는 산줄기를 바라보셨다. 산은 검고 깊었다.

동생 영익이는 벌써 이 년째 그 산속의 절에서 사법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그리고 그저께 집에 내려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내가……."

하고 무슨 말을 이으려다 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었다.

그때 영익이의 말끝에 맺힌 숨소리는 '흡' 하고 내 가슴에 얹혀 아직도 내려가지 않은 것만 같았다.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의 **구조**는 지극히 **천박**하였다.

우선 대문이 번화한 도로변으로 나 있는 데다가 오래되고 낡아서 녹이 슨 철제였다. 그것은 잘 닫히지도 않아 비긋하니 틀어진 채 열려 있었다.

그리고 마당은 거의 없다는 편이 옳았다. 그나마 손바닥만한 것을 시멘트로 빈틈없이 발라 놓았고, 방들은 오밀조밀 붙어있어 개수만 여럿일 뿐, 좁고 어두웠다.

그중에 한 방은 아예 전혀 **채광 통풍조차**도 되지 않았다.

그것도 원래는 **창문**이었는데, 아마 바로 옆에 가게를 이어 내느라고 **막아 버린** 모양이었다. 그 가게란 양품점으로, 레이스가 많이 달린 네글리제와 여자용 속옷, 스타킹 따위를 고무 인형에 입혀 세워 놓은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가게를 중심으로 앞뒤에 같은 양품점들이 늘어서 있고 그 옆에는 양장점, 제과소, 음식점, 식료품 잡화상들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마찰음**, 무엇이 부딪쳐 떨어지는 소리, 어느 악기점에선가 쿵, 쿵, 울려 오는 스피커 소리……끼익, 하며 숨넘어가는 자동차 소리.

한마디로 그 집은, 아스팔트의 바둑판, 환락과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에 금방이라도 쓸려 버릴 것처럼 위태해 보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 올 집이라고, 그 집 문간에 웅숭그리고 서서 철제 대문 사이로 안을 기웃거리며 들여다보는 **우리들**은 어쩐지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기만 하였다.

- 최명희, 『쓰러지는 빛』 -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②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그의 근황을 궁금해 한다.
③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
④ '시장 안의 가게들'은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드는 곳이다.
⑤ '천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번화한 동네이다.

2. [A]~[E]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이만큼에 서서'와 '바라보면'을 보면,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B] : 호명하는 말을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하여, 그 호칭이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③ [C] : '나'와 '우리'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④ [D] : '동네였을 것이다'를 보면, 서술자가 과거 상황에 대해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추측의 의미를 담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E] :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윗글의 '오동나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다.
② 가난한 마을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다.
③ '어머니'가 결혼 후에 심고 정성을 다해 키워 내어 무성해진 애착의 결실이다.
④ 동네 사람들이 마을의 특징에 부합한 별명을 자기 마을에 붙일 때 적용한 단서이다.
⑤ '아버지'가 자식을 얻은 기쁨을 이웃과 나눌 생각에 마을 곳곳에 심은 상징적 기념물이다.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집의 구조, 주변 환경, 거주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내·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쌓은 경험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쓰러지는 빛』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 준다.

① '나'가 '천변' 집에 살면서 추억을 형성해 온 시간들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군.
②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는 것에서,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③ '서걱거리는 소리'와 '불규칙한 마찰음'에서 드러나는 집 주변 환경의 차이는, 두 집에 대해 '나'가 느끼는 친밀감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군.
④ '창문'을 '막아 버린' 방은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는 속성으로 인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과는 다른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군.
⑤ '우리들'의 상황이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다고 한 것은, 변화될 거주 여건을 낯설어하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1일 1 지문 장악의 힘

[문풀&오답 후 강의를 보기 전 간단히]

■ 파트 별 지문 장악법 [쌤의 필기노트와 비교해 보며 공부]

- 문학 : "줄거리와 인물 심리" 위주로 자유로이 지문 요약
- 독서 : "문단 별 중심 내용 위주"로 자유로이 지문 요약

1일 1코칭의 힘

[문풀&오답 후에 강의를 본 뒤에 작성]

■ 데일리 퀴즈 [코칭 영상 속 퀴즈에 대한 답변을 적어주세요.]

-질문?

-답변?

정답 및 해설

i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학 현대소설

장면 단위 요약

장면 1 – 밤의 시장 풍경과 천변 동네의 정서
시장 상인들이 리어카를 끌고 돌아오는 풍경 속에서 카바이드 불빛을 바라보며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낀다.
→ 심리 변화: 고요한 감상 → 소박한 만족
→ 원인: 익숙한 공간에서의 반복된 풍경과 정서적 유대

장면 2 –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이웃과의 관계
'어머니'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오동나무 아주머니'라 불릴 만큼 이웃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동네의 정이 부각된다.
→ 심리 변화: 안락함 → 애정과 소속감
→ 원인: 공간 안에서 형성된 유대와 세월의 축적

장면 3 – 오동나무의 성장과 동네에 대한 애착
집 앞 오동나무의 성장 과정을 떠올리며 동네 전체를 '벽오동촌'이라 부르며 소소한 자부심을 느낀다.
→ 심리 변화: 동네에 대한 정감 → 애착과 회상
→ 원인: 나무의 성장과 삶의 시간 축이 겹쳐지는 상징 구조

장면 4 – 오동나무의 꽃과 잎이 상징하는 시간과 삶
오동나무가 피우는 꽃과 잎, 그리고 나무의 나이를 통해 가족의 역사를 되짚으며,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 흐르는 쓸쓸함을 감지한다.
→ 심리 변화: 애틋함 → 가벼운 슬픔과 감정적 침잠
→ 원인: 자연 속에서 흐르는 시간의 흐름, 그에 대한 자각

장면 5 – 어머니와의 대화, 영익에 대한 언급
동생 영익이 이사 이야기를 듣고 무겁게 반응한 장면을 회상하며 그의 내면에 담긴 고통을 함께 짊어진 듯한 감정을 느낀다.
→ 심리 변화: 담담한 회상 → 복합적 슬픔과 연민
→ 원인: 가족 구성원의 현실적 고통과 정서적 고립 인식

장면 6 – 새로 이사 갈 집을 처음 목격한 순간의 이질감
번화한 도로, 협소하고 삭막한 구조,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집에 대한 강한 이질감과 위축감을 느낀다.
→ 심리 변화: 거리감 → 거부감과 낯섦
→ 원인: 기존 집과의 극명한 대비, 인간적인 온기가 사라진 공간

장면 7 – 새 집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주체성 상실
새 집 앞에서 기웃거리는 가족의 모습에 대해 '참새처럼 잘못 날아든' 존재로 비유하며, 뿌리 뽑힌 정체성의 상실을 감지한다.
→ 심리 변화: 불안 → 무력감과 정서적 불안정
→ 원인: 삶의 터전 상실이 불러오는 내면의 흔들림

원포인트
이 작품은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기억과 정서가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보여준다.
→ 주인공은 오래된 집에 깃든 가족의 역사와 정서를 회상하며 애착을 드러내다가, 이사라는 사건을 통해 불안과 낯섦, 정체성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기억이 얽힌 내면의 거울로 작용한다.

I.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작품의 내용 이해] 영익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내가....." 라고 말할 뿐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이사를 가야 하는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라는 말을 통해 영익이 이삼일 전 집에 다녀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겼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어머니는 아들이 언제 다녀갔는지를 물어볼 뿐 아들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있지 않다. ③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는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동생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이 '나'가 가리킨 동편 산마루의 깜박이는 불빛의 승암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④ 시장 안의 가게들은 밤이 깊어지면 하나씩 문을 닫는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천변은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 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번화한 동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서술상의 특징 파악] [E]에서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서술자인 '나'이다. 따라서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는 모두 '나'이므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서술자는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을 바라

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벽오동집 아주머니'와 '오동나무 아주머니'는 모두 자신의 어머니를 호명하는 말로 이를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하고 있다. 이는 호칭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가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③ 일인칭 대명사 '나'와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자리를 잡은 곳인 천변에 대해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동네였을 것이다.'는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서술이므로 서술자가 동네의 과거 상황에 대해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소재의 기능 파악] 오동나무는 유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 무늬 같은 꽃을 피웠으며, 이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결에 손수건만 해지고,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부끼며, 가을에는 종이우산만큼이나 넓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나'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동나무는 서술자인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오동나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경제적인 호사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 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당에 심으시며 "기념"이라고 웃으셨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오동나무를 심은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을 지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의 특징에 부합하는 별명을 지은 것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서술자인 '나'이다. ⑤ 오동나무는 내가 태어난 해 아버지가 기념으로 심은 것이므로 자식을 얻은 기쁨으로 인해 심은 나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앞마당에 심은 것이므로 마을 곳곳에 심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을 곳곳에 오동나무가 자라게 된 것은 서술자의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마을 곳곳에 떨어지면서 저절로 자라나게 된 것이다.

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나'는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술자인 '나'는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 부정적 심리를 보이고 있을 뿐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생각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천변' 집에 살면서 이웃들과, 그리고 집 앞마당에 자라는 오동나무와 함께 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가 천변에서 보낸 시간들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③ '서걱거리는 소리'는 앞마당에 있는 오동나무의 무성한 잎사귀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리이고, '불규칙한 마찰음'은 새로 이사를 간 집 주변에서 나는 소리이다. 오동나무 잎사귀가 하늘을 뒤덮는 앞마당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나'는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불규칙한 마찰음'이 들려오는 곳은 '환락과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창문'을 '막아 버린' 방은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채광이나 통풍은 주거의 공간이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볼 때 '나'는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느끼는 애착과는 다른 정서적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다는 것은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 서술자가 느끼는 부정적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술자인 '나'가 변화될 거주 여건을 낯설게 느끼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